

6 월 선교소식 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시 55:22)" 아-멘.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소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란한 풍파를 뚫고 친히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 년 새벽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이곳 탄자니아에도 불어 닥쳐 지난 3 월 중순부터 휴교했던 모든 학교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약 백일 간의 잠적을 깨고 정상적으로 개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되었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 졸업 시험도 이번 주부터 (6 월 29 일)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원래의 계획에 비하여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어 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 1. 리빙스톤 중고등학교 7 월 일정.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1 개월 전에 학교로 돌아왔고 6 월 29 일부터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중학교 1 학년부터 나머지 학년들도 6 월 27 일에 등록하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기때문에 이제부터 12 월 중순 까지 방학없이 25 주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가 건강하게 남은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선교센터 완공 및 입주.

여러 가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체되었던 공사가 끝나고 이제 막 이사를 했습니다. 선교센터는 언덕을 이용하다보니 반 지하 형식으로 앞부분은 2 층, 뒷부분은 3 층으로 건축 되었습니다. 내부 사용 용도로 1 층은 교장, 행정 사무원이 사용하고 회의실이 있으며 그리고 입구에 선교사역 전반과 리빙스톤 학교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전시하는 소개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층은 본 건물을 후원해 주신 서울 신성장로교회의 탄자니아 선교 전시실과 우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의 지난 25 년간 탄자니아 사역을 소개하는 작은 선교 박물관 (Mission With Christ Tanzania: 현지 등록된 선교회 공식 이름-대표

박윤석선교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리빙스톤 학교 대표 사무실과 박선교사 사무실이 2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한 헌금을 해주신 신성장로교회와 건축이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3. 제 2 회 리빙 스톤 고등학교 졸업식.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다면 이미 5 월에 국가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하였을 터이지만 많이 늦어졌습니다. 졸업식은 7 월 9 일 간단하게 치러질 예정이며 총 21 명이 졸업을 하게됩니다.

### 4. 2020 년 고등학교 1 학년 입학.

탄자니아의 고등학교 학년 시작은 7 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소 늦추어졌지만 예년과 비교하게 크게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격생들이 pre-course 를 등록을 하여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시작하였고 7 월 마지막 주에 고등학교 학사 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해마다 입학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 5. 탄자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난 4 월 29 일 이후(확진자 509 명)로 정부의 발표가 없어 정확한 상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공적보건시스템이 작동하기 힘든 환경이다보니 외적으로 보여지는 확진자의 수적 증가가 WHO 와 같은 국제 기구 등에 의해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을 피하고 자율적 경제 흐름을 가까스로라도 유지해 가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를 더 발표하지 않기로 탄자니아 정부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시 개학하기로 결정했을 때, 대통령이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였고 더불어 이번 주부터 모두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두 열렸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 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로서 국가적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장단점을 떠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탄자니아 대통령이 보여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로서의 모습은 그 어느나라 지도자보다 신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보건 시스템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탄자니아는 전 국민적으로 구국기도회를 갖는 등 대통령의 기도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호응해 왔습니다.

5. 박윤석 선교사 무릎 수술에 관하여.

40 대 초반에 신학교 건축 중 지붕처마에서 떨어진 후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재수술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쳐, 다소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외국 여행이 어려워졌고 그러다보니 불편함이 더하여진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하늘 길이 열리고 각 국가들의 여행 규제가 풀려서 한국방문에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수술을 위하여 출국해야 할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입시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2. 탕가 신학교와 리빙 스톤 학교,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3. 박선교사의 무릎 수술과 동시에 박선교사 부부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

2020 년 6 월 29 일